

“365개 섬·연안 해양관광지로...미래 100년 여는 도시 만들것”

주철현 여수시장 민선 6기 취임 3년 간담회

여수밤바다·케이볼카 젊은층 트렌드 자리매김
시민과 대화·콘서트... SNS대상·소통도시 선정
남중권역 재활병원 건립·해양기상과학관 유치

‘여수 밤바다’를 보겠다고 찾아온 관광객이 2년 연속 1300만명을 넘어섰다. 오동도를 시작으로 해양공원, 돌산대교, 돌산공원, 장군도 등 구항 일대 쪽빛 바다를 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케이볼카를 타고 종포해양공원의 야경을 즐기며 낭만포차에서 여수 대표음식을 맛보고 SNS에 올리는 것은 젊은층 사이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여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오르고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여수밤바다, 낭만버스커, 해상케이볼카, 해양레일바이크, 낭만포차 등 여수만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여수를 대표 관광지에 올려놓는 데는 주철현(사진) 여수시장의 추진력이 한몫을 했다.

주 시장은 특히 유럽선 야간 불꽃 투어, 이층버스 시티투어, 야간경관 확충 등 여

수만의 독특한 관광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도 가족·연인·친구 단위 체험 관광의 트렌드를 발 빠르게 파악, 젊은층의 참여도가 높은 관광정책을 추진해왔다는 평가가 많다. 대한민국 SNS대상 및 최고 소통도시 선정, 최우수 지속가능교통도시 등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올리며 괄목할만한 정책 능력을 입증해냈다.

주 시장은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 3일 열린 민선 6기 취임 3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수의 365개 아름다운 섬과 연안을 해양생태관광지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중심 도시가 여수다’라는 평가에 걸맞는 여수의 미래비전을 준비해 가겠다”며 재선 의지를 피력했다.

주 시장은 취임 3년을 맞아 “미래 100년 여는 ‘행복한 도시 여수’ 만들기에 주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임기 동안 이뤄진 1조1000억원에 이르는 경도 개발을 위한 투자 협약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가 하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실질적인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지난 2014년 민선 6기 출범 이후 꾸러진 ‘100인 시민위원회’를 통해 지금까지 141건의 시민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대화·공감 투어, 무지개 콘서트 등을 펼쳐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높인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주 시장은 “현장 소통형은 물론 1일 시민시장과 시민공무원 평가제 등으로 정책 입안·집행·평가까지 시민들 눈높이에서 함께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수 지역민들을 위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개원하고 교육경비를 늘리는 한



돌산대교 케이볼카 야경

편,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써 전남 제1의 도시 위상을 확립해 나간다는 각오다. ‘남중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관심을 쏟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주 시장은 특히 국내 최초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유치에 나서는 한편,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한 여수시 주요 미래전략을 구체화시키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주철현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여수의 미래계획을 만들며 ‘여수호’가 대한민국 최고 행복도시로 거듭나는 향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해양공원 낭만포차

LG화학 여수공장 수년째 청소년 사랑나눔 눈길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청소기·냉장고 등 지원도

여수국가산업 내 LG화학 여수공장이 수년째 지역 청소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랑나눔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LG화학 여수공장에 따르면 여수공장 직원들은 지난달 14일부터 3주 동안 여수지역 청소년의 방과 후 보금자리인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램프의 요정 지니’가 돼 청소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LG화학 여수공장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공기정정기와 진공청소기, 냉장고, 정수기 등 맞춤형 물품을 지원한 것을 비롯,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단 보수 작업과 (우천용) 야외전막 설치 등 환경개선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여수지역 내 14개 결연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젊은 꿈을 키우는 지역아동센터 지니데이’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의 애로사항과 희망사항을 듣고 해



결책을 제공하는 LG화학 여수공장의 대표 청소년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이다. 지난 2010년 처음 실시해 8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2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홍충철 LG화학 여수공장 HR 담당은 “지역대표 기업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물론 지니데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강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 여수공장은 ‘젊은 꿈을 키우는 사랑 LG’라는 사회공헌 슬로건으로 청소년 등 다양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고교 환경동아리 지원사업 ‘LG Chem Earth’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 등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생계형 채무자 빛 103억 탕감 부실채권 소각

여수시가 ‘서민 빛 탕감 희망 프로젝트’에 따라 생계형 채무자들이 진 빚 103억 원을 소각했다.

여수시는 지난 3월 시청 회의실에서 주철현 시장과 유종일 주발리은행장, 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실채권 소각행사(사진)를 열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상공인, 주부 등 사회적 약자 604명의 채무 103억원(원금 38억, 이자 65억)이 소각됐다.

이번 탕감은 여수시가 지난달 여수수협, 여수·여천신협, 세마을금고 등 13개 금융기관과 부실 채권 기부를 통해 서민 빚을 탕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라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 중 파산·실직·질병 등으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을 주발리 은행에 기부했다. 여수시는 이날 채무 소각으로 그동안 빚을 갚지 못해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경기 침체와 경제 양극화 심화로 국내 전체 가구 중 60%가 빚을 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기채무에 따른 사회문제도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민행복을 위해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범위에서 이번 ‘서민 빛 탕감 프로젝트’를 계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수출입업체 경쟁력 강화 여수세관 ‘AEO 설명회’

여수세관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AEO 설명회’를 실시했다.

AEO 제도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들이 공인 획득시 수출입 검사 및 절차 간소화와 자금부담 완화, 수출입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등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 전담팀의 AEO 제도 소개와 공인신청·절차, 공인 필요성과 혜택 등 AEO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수출입 관계자들의 질의응답,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특히 설명회 이후 지역 수출입 전문 업체 중 희망 업체에 대한 1대 1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권문갑 여수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수출입업체가 AEO 공인 획득으로 대외 경쟁력을 갖춘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無 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